韓·日 聖書語彙 對照

- 漢字語의 代替 및 分布를 中心으로 -

李 鍾 洙*

目 次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 성서 한자어의 대체
1.1 대체되지 않은 한자어
1.2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는 한자어
1.3 한자어가 고유어로의 대체
1.4 고유어가 한자어로의 대체
2. 한·일 성서 한자어의 분포
2.1 한·일 성서의 공통한자어
2.2 한·일 성서의 다른 한자어
Ⅲ. 결 론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聖書』[1]에 나오는 한자어의 대체 및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 고찰하는 데 있다. 동일한 내용인 『聖書』에 있어서 한·일 양국어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聖書』의 한자어를 대조해 봄으로써, 각각의 한자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 서로의

* 계룡공업고등학교 교사

1) 한국어는『성경』, 일본어는『聖書』라 칭하나 통일성을 위해 『聖書』라 한다.

www.kci.go.kr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자료로는 대한성서공회와 日本聖書協會에서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1911년『관쥬신약젼셔』와 1917년『舊新約聖書 大正訳』, 1956년『성경전서개역한글판』과 1954년『聖書 口語訳』, 그리고 1993년『성경전서표준새번역』과 1987년『聖書 新共同訳』[2]의 신약전서 중 문장체 형식의 서간문인「로마서1～3장」까지 나오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한・일 성서 한자어가 대체되는 변화를 통시적으로 대조하고, 한・일 성서에 공통으로 사용된 한자어와 다르게 사용된 한자어를 공시적으로 대조함으로써 한・일 성서 한자어의 대체 및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한다.

Ⅱ. 본 론

1. 한・일 성서 한자어의 代替

한국어와 일본어의 고유어에는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싸움'이라는 고유어는 '戰爭・戰鬪・論爭・競爭・競技'라는 한자어와 대응하고[3], 일본어의 '常'라는 고유어는 '普段・平素・平生・平常'라는 한자어와 대응한다. 19세기 후반 중국의 한문 성서를 주된 자료[4]로 이루어진 한・일 성서번역의 출발점을 1911년 한국어『신약젼셔』와 1917년 일본어『大正訳』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0여년 동안 3번의 번역과정[5]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대체를 4종류로 분류하여, 통시적으로 대조해 봄으로써 한자어 및 고유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고찰한다.

---

2) 한국어 성서:『예수셩교젼셔』를 『로스역』, 『관쥬 신약젼셔』를 『신약젼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개역한글판』,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표준새번역』
일본어 성서:『引照 新約全書 明治訳』을 『明治訳』, 『舊新約聖書 大正訳』을 『大正訳』, 『聖書 口語訳』을 『口語訳』, 『聖書 新共同訳』을 『新共同訳』으로 칭한다.

3) 김광해(1992),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株)塔出版社, p.5

4) 廣剛(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p.34

5) 1910년대 : 한국어『신약젼셔』, 일본어『大正訳』
1950년대 : 한국어『개역한글판』, 일본어『口語訳』
1990년대 : 한국어『표준새번역』, 일본어『新共同訳』

www.kci.go.kr

1.1 代替되지 않은 한자어

한국어의 경우 개화기 이후 서양을 통해 유입된 번역물의 용어들은 대개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한자어가 3번에 걸친 번역과정에서도 代替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찰한다.

(1) 미련ᄒᆞᆫ쟈와 ᄇᆡ약ᄒᆞᄂᆞᆫ쟈와 무졍ᄒᆞᆫ쟈와 불샹히넉이지아니ᄒᆞᄂᆞᆫ쟈니 (로1:31, 191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1:31, 1956)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로1:31, 1993)

無知・違約・無情・無慈悲なる者にして、(ロ1:31, 1917)
無知、不誠実、無情、無慈悲な者となっている。(ロ1:31, 1954)
無知、不誠実、無情、無慈悲です。(ロ1:31, 1987)

(2) 참고 션을 힝ᄒᆞ야 영광과존귀와 썩지아니ᄒᆞᆷ을 구ᄒᆞᄂᆞᆫ쟈의게는 영싱으로 갑흐시고 (로2:7, 1911)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2:7, 1956)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로2:7, 1993)

耐へ忍びて善をおこなひ光榮と尊貴と朽ちざる事とを求むる者には、永遠の命をもて報い、(ロ2:7, 1917)
すなわち、一方では、耐え忍んで善を行って、光榮とほまれと朽ちぬものとを求める人に、永遠のいのちが与えられ、(ロ2:7, 1954)
すなわち、耐忍強く善を行い、光榮と譽れと不滅のものを求める者には、永遠の命をお与えになり、(ロ2:7, 1987)

예문(1)(2)의 '無情', '善'과 같은 한자어는 한・일 양국에서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번의 번역과정에서도 서로 대체되지 않은 한자어이다. 이와 같이 대체되지 않은 한국어 한자어는 그 외 100여개, 일본어 한자어는 50여개(5개의 当て字 포함)가 더 있으며, 그 중 한・일 공통으로 사용된 한자어는 26개이다.[6]

www.kci.go.kr

한국어 한자어 : 各, 拒逆, 求, 救援, 祈禱 외 95개
일본어 한자어 : 寬容, 教師, 命, 無知, 服 외 45개
공통된 한자어 : 姦淫, 感謝, 毒, 靈, 無慈悲, 無情, 辨明, 福音, 不義, 使徒, 善, 惡, 惡意, 良心, 榮光, 偶像, 義, 情欲, 主, 知識, 眞理, 差別, 割禮 (*[7]復活, 永遠, 律法) 26개

1.2 다른 한자어로 代替되는 한자어

고유의 문자를 갖지 못했던 한국어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吏讀式 표기 방법이 있었고, 조선 초까지는 口訣이란 吐를 만들어 언어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1446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게 되었으나 일반생활에서 한자어의 영향은 우리말을 압도했다. 그 후 근대화가 되면서 國漢文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한자를 이용한 「かな」문자가 성립되어 9세기부터 표기 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었고, 그 덕분에 고유어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관계로 한국어의 경우는 일본어보다 많은 한자어가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시대적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4종류로 나누어 예문을 통해 고찰한다.

(3) 뎌희가 하ᄂᆞ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밧고와 창조홈을 밧은 만물을 만물 창조ᄒᆞ신 쥬보다 더 경ᄇᆡᄒᆞ고 셤기ᄂᆞᆫ고나 쥬는 곳 영원히 찬미ᄒᆞᆯ이시로다 (로1:25, 1911)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로1:25, 1956)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로1:25, 1993)

(4) それ神の怒りは、不義をもて眞理を阻む人の、もろもろの不虔(ふけん)と不義とに對ひて天より 顯る。(ロ1:18, 1917)
神の怒りは、不義をもって真理をはばもうとする人間のあらゆる不信心(ふしんじん)と不義とに対して、天から啓示される。(ロ1:18, 1954)
不義によって真理の働きを妨げる人間のあらゆる不信心(ふしんじん)と不義に対して、神は天から怒りを現されます。(ロ1:18, 1987)

6) 로마서 1장~3장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는 것이며, 이하 본 논문의 대상은 이와 같다.
7)「*」의 표기는 일본어 특유의 한자읽기인데, 용어의 편의상 이하「当て字」라 한다.

www.kci.go.kr

(5) 我はギリシヤ人にも夷人(えびす)にも、智き者にも愚なる者にも負債(おひめ)あり。(ロ1:14, 1917)
わたしには、ギリシヤ人にも未開(みかい)の人(ひと)にも、賢い者にも無知な者にも、果たすべき責任(せきにん)がある。(ロ1:14, 1954)
わたしは、ギリシヤ人にも未開(みかい)の人(ひと)にも、知恵のあるひとにもない人にも、果たすべき責任(せきにん)があります。(ロ1:14, 1987)

한국어 예문(3)은 1910년대 '創造홈을 밧은 萬物'이라는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句를 '被造物'이라는 하나의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며, 일본어 예문(4)에서는 1910년대 '不虔'의 한자어가 '不信心'의 한자어로 대체되어 있다. 특히 일본어 예문(5)의 '夷人・負債'와 같이 1910년대『大正訳』에서는 일본어의 초기 한자 유입에서 볼 수 있는 수용방식인 '当て字'가 많이 나온다. 이와 같이 1910년대의 한자어가 1950년대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어 1990년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17개, 일본어는 11개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許諾⇒約束⇒約束(로1:2), 神⇒靈⇒靈(로1:4), 權能⇒能力⇒能力(로1:4) 외 13개
일본어 : 約し給う⇒約束される⇒約束される(ロ1:2), 違約⇒不誠実⇒不誠実(ロ1:31), 復活(よみがへり)⇒復活(ふっかつ)⇒復活(ふっかつ)(ロ1:4), 仁慈(なさけ)⇒慈愛(じあい)⇒慈愛(じあい)(ロ2:4) 외 7개

(6) 이 복음은 그 여러 션지쟈로 셩경에 미리 허락ᄒᆞ신 것이오 (로1:2, 1911)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것이라 (로1:2, 1956)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로1:2, 1993)

(7) さらばユダヤ人に何の優るる所ありや、また割禮に何の益(えき)ありや。(ロ3:1, 1917)
では、ユダヤ人のすぐれている点は何か。また割礼の益(えき)は何か。(ロ3:1, 1954)
では、ユダヤ人の優れた点は何か。割礼の利益(りえき)は何か。(ロ3:1, 1987)

www.kci.go.kr

한국어 예문(6)의 '先知者'는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사용되던 한자어가 1990년대에 '預言者'로 대체되었으며, 일본어 예문(7)의 '益'도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사용되던 한자어가 1990년대 '利益'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사용된 한자어가 1990년대에 대체되는 한국어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25개, 일본어는 4개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平康⇒平康⇒平和(로1:7), 求⇒求⇒懇求(로1:10), 安慰⇒安慰⇒激勵(로1:12) 외 22개
일본어 : 死人⇒死人⇒死者(ロ1:4), 平安⇒平安⇒平和(ロ1:7), 惡念⇒惡念⇒邪念(ロ1:29) 외 1개

(8) 평안ᄒᆞᆫ 길을 아지못ᄒᆞ고 (로3:17, 1911)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로3:17, 1956)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로3:17, 1993)

(9) この故に神は彼らを其の心の慾(よく)にまかせて、互にその身を辱しむる汚穢に付し給う。(ロ1:24,1917)
ゆえに、神は、彼らが心の欲情(よくじょう)にかられ、自分のからだを互にはずかしめて、汚すままに任せられた。(ロ1:24, 1954)
そこで神は、彼らが心の欲望(よくぼう)によって不潔なことをするにまかせられ、そのため、彼らは互いにその體を辱めました。(ロ1:24, 1987)

한국어 예문(8)은 '平安・平康・平和'와 같은 유사한 의미의 한자어가 번역시기에 따라 다르게 대체되어 사용된 경우이며, 마찬가지로 일본어 예문(9)도 '慾・欲情・欲望'이라는 유사한 의미의 한자어가 번역시기에 따라 다르게 대체된 한자어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 1950년대 1990년대에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어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10개 일본어는 2개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證據⇒證人⇒證言(로1:9), 惡毒⇒醜惡⇒惡行(로1:29), 陰害⇒誹謗⇒中傷(로1:30) 외 7개
일본어 : 逆性の用⇒不自然⇒自然にもとるものに變え(ロ1:26), 信ぜざる者⇒不真実の者⇒不誠実な者(ロ3:3)

www.kci.go.kr

(10)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침이니 육신으로 말ᄒᆞ즉 다윗의 ᄌᆞ손으로 탄싱하시고 (로1:3, 1911)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1:3, 1956)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로1:3, 1993)

한국어 예문(10)의 경우 '子孫・血統'의 한자어가 'ᄌᆞ손->혈통->자손'으로 번역되었다. 즉 1910년대의 '子孫'이라는 한자어가 1950년대에는 '血統'으로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에 '子孫'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의 한자어가 1950년대에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에 회귀한 한국어 한자어는 그 외 6개 더 있으나, 일본어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 : 世上을 創造⇒創世⇒世上을 創造(로1:20), 震怒⇒怒⇒震怒(로2:8), 義로운 사람⇒義人⇒義로운 사람(로2:13) 외 3개
일본어 :

예문(3)~(10)처럼 한・일 성서에 나타나는 양국 한자어가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4분류로 나누어 대조, 고찰해 보았다. 위의 예문처럼 한국어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대체되는 한자어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같이 사용되던 한자어가 구어체로 번역된 1993년『표준새번역』에서 가장 많이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휘의 변천에 있어서 1956년『개역한글판』은 1911년『신약젼셔』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면이다.[8]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예문(4)와 같이 1910년대의 한자어가 1950년대 대체되어 1990년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와, 예문(7)과 같이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사용된 한자어가 1990년대에 대체되어 사용되는 한자어로 크게 양분되어 있어 대체되는 변화의 폭이 한국어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1.3 한자어가 고유어로 代替되는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선택할 때, 고유어는 문맥을 먼저 필요로 하는 문맥 의존적인 반면에 한자어는 한자어가 갖는 본래 의미에 의해 문맥이 나중에 결정되는

8) 나채운(1971),『國譯聖書에 對한 國語學的 考察』, 장로회 신학대학, p.193

www.kci.go.kr

문맥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일 성서의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는 형태를 2분류로 나누어 고찰한다.

(11)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침이니 육신으로 말ᄒᆞᆫ즉 다윗의 ᄌᆞ손으로 탄싱ᄒᆞ시고(로1:3, 1911)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1:3, 1956)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로1:3,1993)

(12) 讒言する者・謗る者・神に憎まるる者・侮る者・高ぶる者・誇る者・惡事を企てる者・父母(ふぼ)に逆らう者、(ロ1:30, 1917)
そしる者、神に憎む者、不遜な者、高慢な者、大言壯語する者、惡事をたくらむ者、親(おや)に逆らう者となり、(ロ1:30, 1954)
人をそしり、神を憎み、人を侮り、高慢であり、大言を吐き、惡事をたくらみ、親(おや)に逆らい。(ロ1:30, 1987)

한국어 예문(11)의 귀한 사람이 태어남을 일컫는 의미의 '誕生'이란 한자어는 고유어 '태어나다・나다'와 대응된다. 이를 '나다'라는 고유어에 '시'라는 존경의 선어말어미를 붙여 '나시다'로 번역하고 있다. 즉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관계에서 '나이 : 年歲, 술 : 藥酒, 밥 : 食事, 아버지 : 父親' 등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면 높임말이 된다. 그러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 敬語의 뉘앙스에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고유어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어 예문(12)는 '父母'라는 한자어를 '親'라는 고유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口語訳』에서는 현대철자법을 사용하고 当用漢字에 따라 한자어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9]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한・일간 尊敬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을 때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1910년대의 한자어가 1950년대 고유어로 대체되어 1990년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의 경우는 위의 예문 외 4개 더 고찰할 수 있으나, 일본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 : 對身하다⇒바꾸다⇒바꾸어놓다(로1:23), 決斷코 아니다⇒그럴 수 없다⇒그럴 수 없다(로3:4), 眞理⇒참되심⇒참되심(로3:7) 외 1개

9) 門脇 淸・大柴 桓(1983), 『日本聖書飜譯史』, 新敎出版社, p.229

www.kci.go.kr

일본어 :

(13) 썩어지지아니하ᄂᆞᆫ 하ᄂᆞ님의 영광을 변ᄒᆞ야 썩어질 사람과 금슈와 버러지의 형샹의 우샹으로 ᄃᆡ신ᄒᆞ엿ᄂᆞ니라 (로1:23, 1911)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석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1:23, 1956)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1:23, 1993)

(14) これ書をロマに在りて神に愛せられ、召されて聖徒(せいと)なりたる凡ての者に贈る。(ロ1:7,1917)
ローマにいる、神に愛され、召された聖徒(せいと)一同へ。(ロ1:7, 1954)
神に愛され、召された聖(せい)なる者(もの)となったローマの人たち一同へ。(ロ1:7, 1987)

한국어 예문(13)의 '禽獸'라는 한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날짐승과 들짐승. 곧 모든 짐승' 다른 하나는 '무례하고 추잡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데 이를 짐승의 의미로 문맥에 맞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어 예문(14)의 경우도 '聖徒'의 한자어를 '聖なる者'라는 고유어로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10년에서 1950년까지 사용하던 한자어가 1990년에 고유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어는 위의 예문 외 13개 일본어는 2개가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彼此⇒彼此⇒서로(로1:12), 願하다⇒願하다⇒바라다(로1:13), 愚蠢⇒愚蠢-⇒어리석다(로1:22) 외 10개
일본어 : 靈⇒靈⇒心(ロ1:9), 義人⇒義人⇒正しい者(ロ1:17)

예문(11)~(14)처럼 양국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대조,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의 58%가 한자어인 상황에서[10] 한자어를 고유어로 문맥에 맞게 대체하여 번역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노력이었을 것이다. 특히 예문 (13)처럼 191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사용하던 한자어가 1990년대에 고유어로 많이 대체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逐語譯에서 意味譯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기피하려는 일반적인

10) 김종택(1993),『국어 어휘론』, (주)탑출판사, p.79

www.kci.go.kr

정서가 반영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는 예문(12)(14)와 같이 한국어보다 한자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는 현상의 예문이 적다. 이는 성서 초기 번역본에서 한자어의 분포가 그만큼 적었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한자가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4 고유어가 한자어로 代替되는 경우

위의 1.3과 같이 대응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선택은 문맥이 먼저인가 나중인가에 따른 시간적 前後관계로 결정된다. 한・일 성서 번역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변화의 형태를 4분류의 예문을 통해 고찰한다.

(15) 미련ᄒᆞᆫ쟈를 ᄀᆞᄅᆞ치ᄂᆞᆫ쟈요 어린 ᄋᆞ히의 스승이라 ᄒᆞ면셔 (로2:20, 1911)
어린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2:20, 1956)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로2:20, 1993)

(16) 御子は肉よれば、ダビデの裔(すゑ)より生まれ、(ロ1:3, 1917)
御子に関するものである。御子は、肉によればダビデの子孫(しそん)から生まれ (ロ1:3, 1954)
御子に関するものです。御子は、肉によればダビデの子孫(しそん)から生まれ (ロ1:3, 1987)

한국어 예문(15)는 '스승'이라는 고유어가 '先生'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으며, 일본어 예문(16)은 '裔'라는 고유어가 '子孫'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이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 한자어로 대체되어 1990년까지 존속하는 한국어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5개, 일본어는 6개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마음⇒心靈⇒心靈(로1:9), 쓰다⇒記錄하다⇒記錄하다(로1:17), 다툼⇒分爭⇒分爭(로1:29) 외 2개
일본어 : 國人⇒異邦人⇒異邦人(ロ1:5), 造られたる物⇒被造物⇒被造物(ロ1:20), 他の人⇒他人⇒他人(ロ2:1) 외 3개

www.kci.go.kr

(17) 네가 음란치말나 말ᄒᆞ고 너는 음란ᄒᆞ며 네가 우샹을 뮈워ᄒᆞ고 너는 당집 물건을 도적질ᄒᆞ며 (로2:22, 1911)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로2:22, 1956)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로2:22, 1993)

(18) 彼らは神の眞を易へて虛僞となし、造物主を措きて造(つく)られたる物(もの)を拜し、且これに事ふ、造物主は永遠に讃むべき者なり、アァメン。(ロ1:25, 1917)
彼らは神の真理を変えて虚偽とし、造物主の代りに被造物(ひぞうぶつ)を拜み、これに仕えたのである。創造者こそ永遠にほむべきものである、アァメン。(ロ1:25, 1954)
神の真理を偽りに替え、造り主の代りに造(つく)られた物(もの)拜んでこれに仕えたのです。造り主こそ永遠にほめたたえられるべき方です、アーメン。(ロ1:25, 1987)

한국어 예문(17)은 '미워하다'라는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 '可憎히 여기다'라는 한자어 句로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에 '미워하다'로 회귀하는 것이며, 일본어 예문(18)도 '造られたる物'라는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 '被造物'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 '造られた物'로 회귀한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는 본래 한자어가 많았기 때문에 고유어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일본어의 경우는 한자어가 적었기 때문에 고유어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 회귀하는 형태의 한국어는 위의 예문 외 5개, 일본어는 3개 더 고찰할 수 있다.

한국어 : 굿게ᄒᆞ다⇒堅固하게하다⇒굳세게 하다(로1:11), 맛당ᄒᆞ다⇒該當하다⇒마땅하다(로1:32), 모든 사람⇒各사람⇒모든 사람(로2:9) 외 2개
일본어 : 造物主(つくりぬし)⇒創造者(そうぞうしゃ)⇒造り主(ロ1:25), 患難(なやみ)⇒患難(かんなん)⇒惱み(ロ2:9), 苦難(くるしみ)⇒苦惱(くのう)⇒苦しみ(ロ2:9)

(19) 춤고 션을힝ᄒᆞ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아니ᄒᆞᆷ을 구ᄒᆞᄂᆞᆫ쟈의게는 영싱으로 갑흐시고(로2:7, 1911)

www.kci.go.kr

참고 선을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하시고 (로2:7, 1956)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로2:7, 1993)

예문(19)는 '썩지 아니함'이라는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1990년대에 '不滅'이라는 한자어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한국어는 위의 예문 외 5개 더 고찰할 수 있으나, 일본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 : 미련ᄒᆞ다⇒미련하다⇒知覺없다(로1:21), 버러지⇒버러지⇒기어 다니는 動物(로1:23), 핑계ᄒᆞ다⇒핑계하다⇒辨明하다(로2:1) 외 2개
일본어 :

(20) 셩덕의 신으로 말ᄒᆞᆫ즉 죽은 가온ᄃᆡ셔 부활ᄒᆞ심으로 하ᄂᆞ님의 아ᄃᆞᆯ 된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셧스니 곳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니시라 (로1:4, 1911)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1:4, 1956)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1:4, 1993)

예문(20)은 '나타내다'라는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에는 '認定되다'라는 한자어로 1990년대는 '確定되다'라는 또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한국어는 위의 예문 외 2개 더 고찰할 수 있으나, 일본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 : 모든 나라⇒모든 異邦人⇒모든 異邦사람(로1:5), 너 스스로⇒네 自身⇒自己自身(로2:21)
일본어 :

예문(15)~(20)에서는 한・일 성서의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형태를 4분류로 나누어 고찰했다. 한국어의 경우는 예문(15)(17)(19)(20)처럼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현상이 4분류로 나타나는데, 일본어의 경우는

www.kci.go.kr

예문(16)처럼 문어체인 1910년대 고유어가 구어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1950년대 한자어로 대체되는 형태와 예문(18)처럼 1910년대 고유어가 1950년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가 1990년대 회귀하는 형태인 2분류로 나누어진다.

위의 예문과 같이 한·일 성서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代替현상을 통시적으로 4분류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의 경우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사용하던 한자어가 1990년대에 다른 한자어로의 대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1911년의『신약젼셔』와 1956년의『개역한글판』은 어휘의 면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며, 일본어의 경우는 1910년대『大正訳』에 나타나는 일본어 특유의 한자 읽기인 '当て字'가 1950년대 한자어로 정착되는 과정(復活(よみがへり)⇒復活(ふっかつ)⇒復活(ふっかつ))을 고찰할 수 있으며, 어휘가 대체되는 현상에서 변화되는 형태의 폭이 적어 한국어보다는 어휘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임을 고찰할 수 있었다.

2. 한·일 성서 한자어의 분포

言語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어휘가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지는 경우와 기존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없던 어휘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11] 그러나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일 성서 번역에 있어서 많은 어휘의 변화 및 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일본어 성서에는 '当て字'라는 특유의 한자 읽기가 音讀한자어로 정착되는 과정(復活(よみがへり)->復活(ふっかつ)->復活(ふっかつ))에서 한국어 성서의 한자어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일 한자어의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은 어떠한가를 공시적 대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21) A.후예로말무암아탄싱ᄒᆞ시고셩ᄒᆞᆫ령으로써의ᄒᆞᆫ즉권세로죽음에다시닐게ᄒᆞ무로써하나님의아달되물발켜ᄉᆞ니곳우리쥬예수키리쓰토라 (로1:4, 1887)
B.셩덕의 신으로말ᄒᆞᆫ즉 죽은 가온ᄃᆡ셔 부활ᄒᆞ심으로 하ᄂᆞ님의 아ᄃᆞᆯ 된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셧스니 곳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1:4, 1911)
C.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11) 성백인·김현권(1999),『언어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180

www.kci.go.kr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1:4, 1956)
D.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1:4, 1993)

A.聖善の靈性に由れば甦(よみがへ)りし事(こと)によりて明らかに神の子たること顯れたり。 (ロ1:4, 1880)
B.潔き靈によれば、死人の復活(よみがへり)により大能をもて神の子と定められ給へり、卽ち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なり。(ロ1:4, 1917)
C.聖なる霊によれば、死人からの復活(ふっかつ)により、御力をもって神の御子と定められた。これが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である。(ロ1:4, 1954)
D.聖なる霊によれば、死者の中からの復活(ふっかつ)によって力ある神の子と定められたのです。この方が、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です。(ロ1:4, 1987)

예문(21)의 한・일 성서의 번역을 A⇒ B⇒ C⇒ D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고찰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근대 후기의 文에서 현대어문으로 번역되는 최근 100여년 동안 어휘변천, 표기변천, 문체의 변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국어와 일본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復活」이라는 한자어를 대조해보면 한국어는 '다시닐게홈〉 부활(復活)〉 부활(復活)〉 부활(復活)'로 번역되었으며, 일본어의 경우는 '甦(よみがへ)りし事(こと)〉 復活(よみがへり)〉 復活(ふっかつ)〉 復活(ふっかつ)'로 번역되었다. 즉 한국어의 경우는 1887년에 '다시닐게홈'이라는 고유어가 1911년에서는 '부활(復活)'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는데, 일본어의 경우는 1880년의 '甦(よみがへ)りし事(こと)'라는 고유어가 1917년에 '復活'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음에도 'よみがへり'로 訓讀하고 있다. 이후 1954년에 비로소 '復活'의 한자어를 'ふっかつ'로 音讀하면서 일본어 어휘체계에서 하나의 단어로 정착되게 된다. 이와 같이 한・일 성서 한자어에 나타나는 특징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도 고유어에서 한자어로 되는 정착의 시기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일 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중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의 분포를 통해 한・일 한자어의 특징을 고찰한다.

www.kci.go.kr

2.1 한・일 성서의 공통한자어

2.1.1 1910년대의 공통한자어

1910년대 한국어 성서『신약젼셔』와 일본어 성서『大正訳』에 나오는 한국어 한자어는 174개, 일본어 한자어는 73개이다.

한국어 : 各, 刻薄, 感謝, 拒逆, 決斷, 敬虔, 經文, 敬拜, 苦生, 困苦 외 164개
일본어 : 使徒, 福音, 聖書, 肉, 靈, 死人, 大能, 主, 從順, 平安 외 63개

이 중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의 예문과 한자어를 고찰한다.

(22) 만일 하ᄂᆞ님의 진리가 나의 거짓 말노 영광을 더 만히 엇엇스면 엇지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밧으리오 (로3:7, 1911)
わが虚僞によりて神の誠實いよいよ顯れ、その榮光(えいくわう)とならんには、いかで我なほ罪人として審かるる事あらん。(ロ3:7, 1917)

예문(22)의 '榮光'이라는 한자어는 191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23개이다.

使徒, 福音, 主, 聖徒, 感謝, 兄弟, 義, 義人, 不義, 神性, 父母, 無情, 善, 惡, 良心, 知識, 眞理, 偶像, 割禮, 毒, 情欲, 眞實, 平安 (23)

2.1.2 1950년대의 공통한자어

1950년대 한국어 성서『개역한글판』과 일본어 성서『口語訳』에 나오는 한국어 한자어는 196개, 일본어 한자어는 133개이다.

한국어 : 可憎, 各, 看過, 姦淫, 感謝, 拒逆, 堅固, 決, 敬虔, 敬拜 외 186개
일본어 : 使徒, 福音, 聖書, 約束, 關, 肉, 子孫, 聖, 霊, 死人 외 123개

이 중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의 예문과 한자어를 고찰한다.

(23)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3:22, 1956)
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る神の義であって、すべて信じる人に与えられるものである。そこにはなんらの差別(さべつ)もない。(ロ3:22, 1954)

www.kci.go.kr

예문(23)의 '差別'이라는 한자어는 195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39개이다.

使徒, 福音, 約束, 靈, 復活, 主, 異邦人, 聖徒, 感謝, 人, 義, 義人, 不義, 眞理, 永遠, 神性, 榮光, 被造物, 惡意, 詐欺, 無慈悲, 善, 患難, 惡,人, 律法, 良心, 稱, 知識, 姦淫, 偶像, 無割禮, 無益, 毒, 情欲, 辯明, 眞實, 判斷, 兄弟 (39)

2.1.3 1990년대의 공통한자어

1990년대 한국어 성서『표준새번역』과 일본어 성서『新共同訳』에 나오는 한국어 한자어는 191개, 일본어 한자어는 129개이다.

한국어 : 各, 懇求, 姦淫, 懇切, 感謝, 拒逆, 模樣, 激勵, 結局, 告發 외 181개
일본어 : 姦淫, 感謝, 決, 啓示, 高慢, 關係, 寬容, 教師, 具體的, 今日 외 119개

이 중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의 예문과 한자어를 고찰한다.

(24)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로1:2, 1993)
この福音は、神が既に聖書の中で預言者(よげんしゃ)を通して約束(やくそく)されたもので、(ロ1:2, 1987)

예문(24)의 '預言者・約束'라는 한자어는 199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한자어는 위의 예문 외 43개이다.

使徒, 福音, 子孫, 靈, 復活, 主, 平和, 感謝, 知慧, 義, 不義, 眞理, 永遠, 榮光, 情欲, 關係, 惡意, 殺意, 無情, 無慈悲, 寬容, 善, 不滅, 律法, 良心, 知識, 教師, 姦淫, 偶像, 神殿, 割禮, 惡, 指摘, 毒, 悲慘, 差別, 面, 被造物, 行爲, 寬容, 未開, 辯明, 要求 (43)

위와 같이 시대별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 전체에 나타나는 공통한자어의 분포를 <표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표1> 한·일 성서의 공통한자어 數

구 분	한 국 어	일 본 어
1910년대 『신약젼셔』 : 『大正訳』	174개중 23개	73개중 23개
1950년대 『개역한글판』: 『口語訳』	196개중 40개	133개중 40개
1990년대 『표준새번역』: 『新共同訳』	191개중 45개	129개중 45개

위의 <표1>과 같이 한·일 성서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한자어는 '1910년대 174개 ⇒1950년대 196개 ⇒1990년대 191개'이고, 일본어의 한자어는 '1910년대 73개 ⇒1950년대 133개 ⇒1990년대 129개'이다. 1910년대 한·일 한자어의 數는 174개 와 73개로 한자의존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에 오면서 점점 한자의존도가 좁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자의존도가 일본어보다 강한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하려는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있고, 일본어의 경우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한자어가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자어가 '1910년대 23개 ⇒1950년대 40개 ⇒1990년대 45개'로 점점 증가하여 한·일 양국간 한자어에 대한 사용의 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한·일 성서의 다른 한자어

2.2.1 1910년대의 다른 한자어

1910년대 한국어 성서『신약젼셔』와 일본어 성서『大正訳』에 나오는 한자어를 대조해 보면 다르게 표현된 한자어를 아래의 예문처럼 고찰할 수 있다.

(25) 이 복음은 그 여러 션지쟈로 성경에 미리 허락ᄒᆞ신 것이오 (로1:5, 1911)
この福音は神その預言者たちにより、聖書(せいしょ)の中に預じめ御子に就きて約し給ひしものなり。(ロ1:5, 1917)

예문(25)처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서도 한·일 한자어의 사용은 다른 것도 있다. 廣剛(2005)는 한국어의 '聖經'은『로스역(1884)』에서 일본어의 '聖書'는『브리지맨 역(1859)』에서 번역된 것을 받아들여 사용한 한자어라고 말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1910년대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사용한 한

12) 廣剛(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p.222

www.kci.go.kr

자어는 위의 ‘聖經・聖書’ 외에 22개가 더 있다.

先知者 : 預言者(1:2), 肉身 : 肉(1:3), 權能 : 大能(1:4), 順從 : 從順(1:5), 平康 : 平安(1:7), 背約 : 違約(1:31), 容納 : 寬容(2:4) (한국어 : 일본어) 외 15개

2.2.2 1950년대의 다른 한자어

1950년대 한국어 성서『개역한글판』과 일본어 성서『口語訳』에 나오는 한자어를 대조해 보면 다르게 표현된 한자어를 아래의 예문처럼 고찰할 수 있다.

(26)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1:3, 1956)
御子に関するものである。御子は、肉によればダビデの子孫(しそん)から生まれ、(ロ1:3, 1954)

예문(26)의 한국어 ‘血統’이라는 한자어는 1910년대 ‘子孫’으로 사용하다가 1950년대에 예수의 탄생의 계보에 대한 총체적 의미의 ‘血統’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이를 일본어는 1910년대 ‘裔’라는 고유어에서 예수의 탄생을 직계로 나타내는 ‘子孫’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한자어 사용의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사용한 한자어는 ‘血統・子孫’ 외에 30개가 더 있다.

平康 : 平安(1:7), 野蠻 : 未開(1:14), 創世 : 天地創造(1:20), 情欲 : 欲情(1:24), 造物主 : 創造者(1:25), 惡毒 : 惡念(1:29), 愚昧 : 無知(1:31), 仁慈 : 慈愛(2:4) (한국어 : 일본어) 외 22개

2.2.3 1990년대의 다른 한자어

1990년대 한국어 성서『표준새번역』과 일본어 성서『新共同訳』에 나오는 한자어를 대조해 보면 다르게 표현된 한자어를 아래의 예문처럼 고찰할 수 있다.

(27)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로3:16, 1993)
その道には破壊(はかい)と悲惨がある。(ロ3:16, 1987)

예문(27)의 한국어 ‘破滅’이라는 한자어는 ‘破壞와 滅亡’이라는 두 가지

www.kci.go.kr

의미를 갖는다. 이를 일본어는 '破壞'라는 한국어 한자어의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사용한 한자어는 '破滅·破壞' 외에 22개가 더 있다.

世上 : 世界(1:20), 分爭 : 不和(1:29), 敵意 : 邪念(1:29), 傲慢 : 高慢(1:30), 辨明 : 辨解(2:1), 自己 : 自分(2:3), 實踐 : 實行(2:13), 信實 : 誠實(3:3) (한국어 : 일본어) 외 14개

위와 같이 시대별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에 다르게 사용되는 한자어를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한·일 성서의 다르게 사용된 한자어 數

구 분	한 국 어	일 본 어
1910년대 『신약젼셔』 : 『大正訳』	174개중 22개	73개중 22개
1950년대 『개역한글판』: 『口語訳』	196개중 31개	133개중 31개
1990년대 『표준새번역』: 『新共同訳』	191개중 23개	129개중 23개

한·일 양국에서 일어난 甲午更張(1884년)과 明治維新(1868년)은 근대화의 전환점으로, 서양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자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위의 예문(25)~(27)의 '성경/聖書, 혈통/子孫, 파멸/破壞'와 같은 유사한 의미의 한자어를 한·일 양국에서는 문체상, 어법상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성서는 중국 성경 원문을 逐語譯하고 있으나, 일본어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훨씬 빠른 明治時代부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자어와 「かな」로 외래어를 消化·吸收·飜譯하였기 때문에 한자어의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2>의 한·일 성서에 다르게 사용되는 한자어가 '1910년대 22개 ⇒1950년대 31개 ⇒1990년대 23개'로 현대어로 오면서 점점 감소함으로써 한자어의 사용이 같아짐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예를 들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을 의미하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에는 '復活·甦生·回生·再生' 등이 있다. 이를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서

www.kci.go.kr

에서는 똑같이 ‘復活’이라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분야에서는 작업의 효율성과 개념의 정확성을 위해 특별한 용어가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 즉 ‘스승’이라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에는 ‘先生・教師’가 있다. 이를 한국어의 경우는 ‘先生’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어의 경우는 ‘教師’라는 한자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각각 3권의『聖書』라는 자료로 한・일 한자어가 대체되는 변화를 통시적으로, 그리고 한・일 한자어에 나타나는 공통한자어와 다른 한자어를 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시적으로 3번의 한・일 성서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번역 시기에 따라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다른 한자어 및 고유어로 대체되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며, 일본어의 경우는 특유의 한자 읽기인 当て字가 音讀한자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둘째, 한・일 성서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는 <표1>과 같이 ‘1910년대 23개 ⇒1950년대 40개 ⇒1990년대 45개’로 점점 증가하여 한자어에 대한 사용의 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현상을 고찰할 수 있다.

셋째, 한・일 성서에 다르게 나타나는 한자어는 <표2>와 같이 ‘1910년대 22개 ⇒1950년대 31개 ⇒1990년대 23개’로 현대어로 오면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한자어가 점점 감소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한자어의 사용이 같아짐을 알 수 있다.

한・일 성서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통하여 한・일 양국은 현대어로 올수록 점점 같은 한자어의 사용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가 일반성을 띠는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어 객관성이 확보된다면,『聖書』라는 자료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参考文献】

· 예수셩교젼셔(1887譯) 대한성서공회
· 관쥬 신약젼셔(1911譯) 대한성서공회
· 성경전서개역한글판(1956譯) 대한성서공회
· 성경전서표준새번역(1993譯) 대한성서공회
· 引照新約聖書 明治訳(1880) 日本聖書協會
· 舊新約聖書 大正訳(1917) 日本聖書協會
· 聖書 口語訳(1955) 日本聖書協會
· 聖書 新共同訳(1987) 日本聖書協會

· 廣剛(2005),「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광해(1992),『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株)塔出版社
· 김종택(1993),『국어 어휘론』, (주)탑출판사
· 나채운(1971),「國譯聖書에 對한 國語學的 考察」, 장로회 신학대학
· 朴英燮(1995),『國語漢字語彙論』, 도서출판 박이정
· 성백인·김현권(1999),『언어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安增煥(2005),「성경 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1)」,韓國日本文化學會
· 門脇 淸·大柴 桓(1983), 『日本聖書飜譯史』, 新敎出版社, p229
· 佐藤喜代治(1988),『漢字と日本語』, 明治書院
· 森岡健二(1988),『語形の形成』, 明治書院

www.kci.go.kr

要 旨

本稿の目的は韓·日聖書における漢字語の対照を通じて「漢字語の代替および分布に見られる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り、資料としては1910年代、1950年代、1990年代の韓国語聖書と日本語聖書を用いた。

考察の結果、翻訳された時代によって、韓·日聖書では漢字語が固有語に代替されたり、逆に、固有語から漢字語に替わったりするなど色々な変化が見られた。特に、韓国語の聖書では、1910年代から1950年代まで使われていた漢字語が1990年代には他の漢字語に代替される変化が多く見られたのが特徴である。このことから、1910年代の聖書と1950年代の聖書は表記だけ変わって語彙はあまり変わらなかったこと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一方、日本語の聖書では、1910年代の漢字語が1950年代に他の漢字語に代替され、その漢字語が1990年代まで使われる。これを見ると、1950年代が文語体から口語体に替わる境目だと言えよう。なお、日本語における漢字の特有な読み方である「当て字」が音読漢字語に変化される過程も考察できた。

また、韓·日聖書の漢字語の分布に見られる特徴として、韓国語と日本語は1910年代から1990年代、すなわち、現代になると共通する漢字語がだんだん増えることが指摘できる。

今後、聖書の資料的価値を証明するために、本稿の考察結果が一般の資料においても見られるかどうかを確認してみ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 : 聖書、漢字語、固有語、宛字、共時的対照、通時的対照

투　　고	2007. 2. 28
1차 심사	2007. 3. 10
2차 심사	2007. 3. 31

住　所 : (300-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문과
電　話 : 010-4466-2727
e-mail : jajasu57@hanmail.net

www.kci.go.kr